

다변화 사회가 부른 '탈동아리'

교내기획

동아리의 위상 재정립과 그 발전 방안

“동아리 가면 뭐해요. 하는 일도 없는데” 신입 동아리회원의 한마디는 현 동아리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학기 초 신입생 유치에 분주했던 동아리들이 시간이 지남에도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 내용성과 발전 전망들을 자신있게 내놓지 못함으로써 과거 동아리가 지녔던 위상 약화 및 탈동아리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 오면서부터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태동은 84년도 학원자율화조치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전 학내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합법적 공간은 동아리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학생회가 생겨나면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다.

학생회는 87년도 이후 그 내용이나 활동, 역할에서 기존 학생들의 정서를 담아 내면서 자주적 학생회로 발전, 현재 과학원 학생회 건설을 이루어 그 지지가반을 다져 나가고 있는 반면 동아리는 '세물주의' 탈피와 종물패의 '우리것을 찾자' 등의 방향성을 모색했으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고 자체내 상충에 얽매임으로서 과거보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학생회 강화에 따라 한정된 활동 인원이 학생회로 흡수 각 단체 내의 문예패, 종물패, 노래패와 학회로 분산되어 그 질적인 향상과 전문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되었고 운영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창작, 비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학생회 활동의 부차적인 도구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지금의 현실에서 동아리는 학

편리한 사고에 젖어있는 신입

회원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동아

시에 단순히 친목도모나 학생회

의 부차적 기관이 아닌, 지금까



◆ 신입회원 유치에 나선 한 동아리 모습

◆ 학생회 강화와 함께 종물패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개인주의 만연, 내용성 빈약이 주요인 체계적 자료정리와 회원 의식개선 시급

내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학내의 병폐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세파에 물들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

리에 단순 가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하는 동아리는 취사선택 됨으로써 동아리에 대한 애착심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는 편하게만 살아가려하는 학우들의 무책임한 행동 탓인 동

지 대학문화의 흐름에 큰 부분을 차지해 온 동아리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자체의 내용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워 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기대된다.

(김일형 기자)

시

벚꽃동산에 올라

— 고향別曲

이 깊은 어둠 흔들어 깨우며
꽃도 없이
꽃물결 지는대로 나부쳐
한 세상
저리 곁에만 저무는구나

주름 많은 肉身
살가운 바람에 무너져
나비갈아라
나비갈아라

저혼자 흐르는 길 위
혼자 못가는 마음만이
따갑게 눈을 뜨고뜨는데

저기저기
사랑이 호몰로 나가
아으 발을 뚫뚫할 때 *
暴雪에 갇힌 철 지난 사랑일랑
이제 떠나거라

아스려지듯
아스려지듯

꽃눈 하나에 몸을 달며
한 세상
꽃물결처럼 열치고 떠나가거라

* 고향가요<動動>에서

이 선 이

(대학원석사1가국문학)

문화단신

극단 '광명' 공연

극단 '광명'이 오는 13일부터 16일, 오후 4시30분과 7시30분에 (첫날 7시30분, 마지막날 4시30분, 각1회) 광명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바스콘셀로소작의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공연한다.

이 작품은 천진하면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제제'를 통하여 인간 삶의 기본적인 문제, 인간과 자연과의 꾸밈없는 교감,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생의 의미와 사랑을 수정처럼 맑게 그려내고 있다.

'북방의 ...장백산' 출발

지난 1991년 11월 '화전'제작출판 예정이었던 '북방의 선물—아!장백산'이 5월초에 출판하게 되었다.

이번 음반은 노래를 통해 민족정신을 회복하고 분단극복시대

의 민족문화정립의 틀을 다지자는 '겨레의 노래' 취지의 연장선

상에서 기획되었으며,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 성악가들과 국내의 어린이, 반주자가 함께 이념과 체제에 결부된 노래를 제외한 중국 조선족의 순수 창작 가곡, 동요만을 만들어 수록하였다.

시간예술연구소 회원모집

우리마당 '시간예술연구소'는 오는 13일부터 4주간 수, 토요일 저녁 7시30분에 갖게될 '14기 사회사건교실' 개최에 따른 회원을 모집 한다.

회원은 사진기의 사용법 및 사진 이론, 촬영 및 암실의 실습작업을 배운다.

입회비는 1인당 4만원이며, 신청자는 신촌역 근처에 위치한 '우리마당'으로 사진기를 각자 지참하여 방문하길 바란다.

(문의:313-7169)

'비나리' 민요공연

민요연구회동아리 '비나리'는 오는 14일 공대 농구장 옆 야외무대에서 민요공연을 갖는다.

이번 무대는 전반기에 교육재정확보와 생활문화운동을 담은 민요를, 후반기에는 5월투쟁의 의미를 알리고 앞으로의 학생운동에 대해 전망해보는 내용의 민요로 약시간동안 공연될 예정이다.

볼파 '록페스티벌' 개최

기계공학과 그룹사운드 '볼파기 파티'는 오는 21일 오후4시 공대 시청각실에서 '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전자공학과 그룹사운드 '카오스'와 조인트 콘서트로 진행되며 '스키드 로우', '오지 오스번' 등의 정통 록음악이 선보이게 된다.

'볼파기파티'는 앞으로도 계속 학내 록 그룹들과 조인트 콘서트를 구상하고 있다 한다.



곳거리 장단에 신명난 종물패

— 노조 문화부장 김승철씨를 만나

한바탕 곳을 하고 본관 앞 잔디밭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김승철 노조문화부장(관리직·44).

지난 78년 본교에 입사하였을 때 학생들이 서너명씩 모여 사물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87년 노조 종물패가 생기자 무작정 뛰어들었다는 그는 일단 곳이 시작되면 자신도 잊은 채 몰두하게 된다며 종물의 묘미를 말한다.

곳이 끝나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린다는 김승철 문화부장은 문화에 대해 "우리의 것, 예를 들자면 민요, 풍물, 탈춤등을 익히고 전승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작년, 민요를 책자를 통해 배우려고 시내 10여개 서점을 둘러 보았으나 찾지 못해 출판사에 직접 찾아가서 어렵게 민요 관련 책자를 구했다

며 재대로된 민요책자하나 시중 서점에 진열되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 무척이나 아쉬운 듯 쓴웃음을 짓는다.

종물패의 정정 인원이 16명인데 근무지와 가정사정 때문에, 노조 출발때보다 6명이 줄어든 9명이 활동하고 있는 종물패의 현 상황에 대해 김승철씨는 패원을 확

있게 하기 위해 곳거리 장단을 자주 친다는 그에게서, 상쇠를 맡고 있던 풍류가 4대 집행부때 그만뒀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장구에서 상쇠로 어쩔 수 없이 바뀌었다고 있지만 우군을 이끌고 패원을 지휘하는 상쇠의 역할에 매력을 느낀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 본관앞 잔디밭에 한바탕 곳을 벌인 김승철씨

화산전국 선전부장을 맡고 있어 대외적으로 바쁜생활을 보내고

단결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종물패가 되고자 연수에 여념이 없다.

대학에 근무하면서 현실참여와 새벽마다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을 보면 이곳이 진정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학생신분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등하교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래가 걱정스럽다며 한숨을 내쉬는 그는 학생들이 검소하고 소박하게 다나기를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

(서동국 기자)

조합원들의 단결 강화를 위한 종물에 힘써 우리의 것을 찾고 되살리는데 노력해야

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며 종물패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개인적으로 오방진과 원오방진 가락을 좋아하지만 여러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깨춤을 출 수

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노래패, 사진부, 수석부 구성이 올해 문화부 사업의 기초지만 이러한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그는 지금 대학원합노련 문

있다.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노조에 가입해 아직까지 한번도 후회해 본적이 없다는 김승철 문화부장은 이번 파업기간에 조합원들의

개교 43주년 창간 37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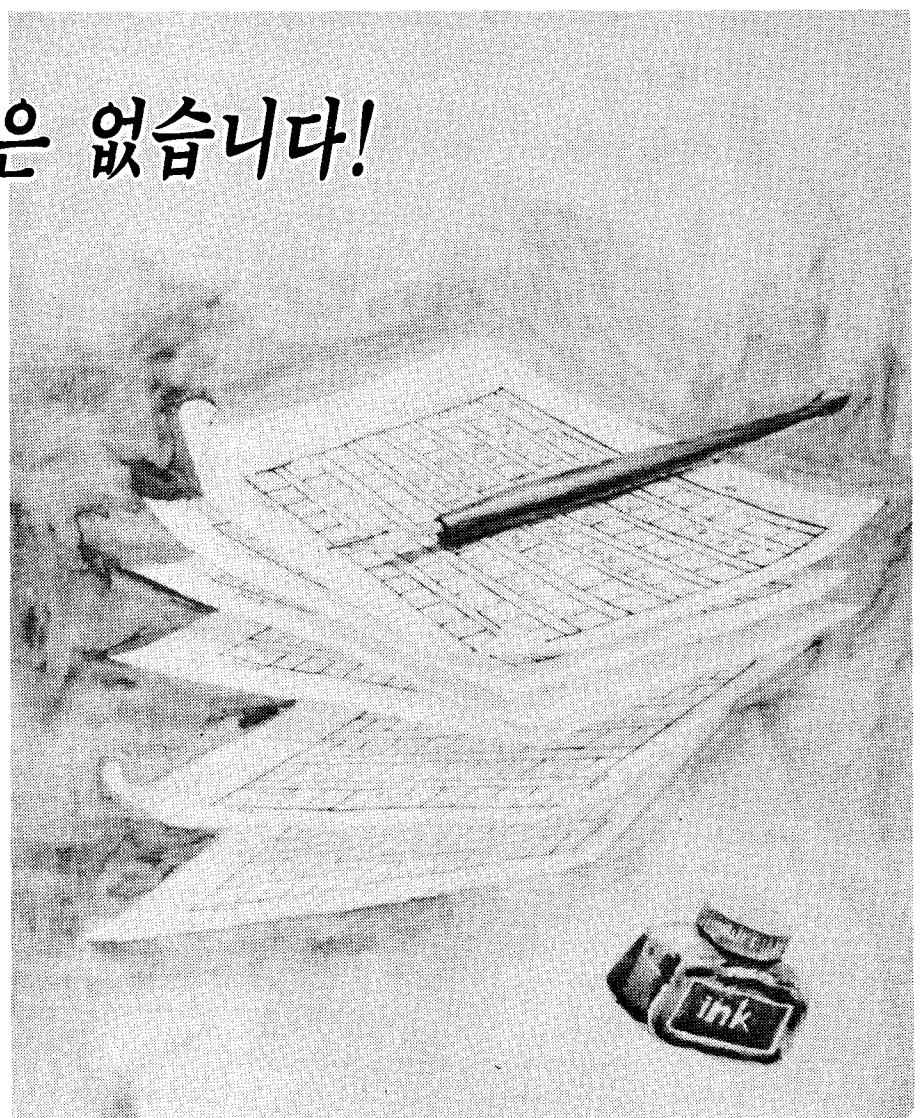
서랍 속에 묻어 버릴 수 만은 없습니다!

대학주보사에서

詩 문예

현상공모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詩 문예 현상 공모

본사는 개교 43주년과 창간 37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인들의 문예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작능력의 질적 고양을 위해 '제3회 대학주보 詩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 ▲응모기간: 1992년 5월 25일까지
- ▲응모부문: 시(원고량, 형식에 제한없이 3편이상)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원고제출처: 서울 편집실(구내전화 0095), 수원 편집실(구내전화 2056)
- ▲심사위원: 추후발표
- ▲입상작 발표: 6월 1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 ▲입상작 처리:
 - 1) 당선작 1편: 상금 25만원과 상패 및 다음학기 장학금 전액 지급
 - 2) 가작 2편: 각 상금 12만원과 상패, 다음학기 장학금 30만원 지급
 - 3) 입선작 3편: 대학주보 게재소정의 원고료 지급 및 상패

대학주보사